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증 주의하세요

광주서 영유아·성인 등 고열·콧물·기침 동반 호흡기환자도 바이러스 검출...위생수칙 당부

최근 광주에서 '파라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결과 강한 전염성 등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데, 영·유아에 국한됐던 양상이 10월 들어 성인층에서도 확인되면서다.

13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파라 인플루엔자' 표본 검체 31건 중 54.8%인 17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한 달 간 수집된 표본 검체에선 165건 중 57건 (34.5%)이 검출

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주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내원한 호흡기환자 검체에 대해 원인병원을 감시하는 '인플루엔자와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사업'을 수행해왔다.

문제는 최근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경향을 보면, 지난달엔 6세 이하의 영·유아층에서만 검출됐던 바이러스가 이달 들어서는 성인층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주로 4-8월에 유행하던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증이 올해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점도 달라진 양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파라 인플루엔자'는 제4급 감염병인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하나로 기침과 콧물, 열이 나는 감기 증상을 유발한다. 소아 후두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심해지면 상부기도에 생긴 염증으로 호흡이 힘든 '크룹(Croup)'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광주·전남 맘카페에서는 이달 들어 파라인플루엔자를 의심하거나, 증상, 대처 방안을 공유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이 맘카페의 한 회원은 "지난 1일 미열이 나더니 2일부터는 38도 이상 고열이 시작됐다"면서 "5일간 열이 나더니 6일째 돼서야 열이 잡힌 뒤 콧물과 기침을 동반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적었다.

소아과 전문가들은 파라 인플루엔자는 예방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기침소리가 이상하거나 열이 높을 경우 입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등 기본 개인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희 신종감염병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기우에 그치는 등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파라 인플루엔자를 시작으로 환절기 이후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이 예년과 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광주동물원 터줏대감은 35세 하마 '힙'

길이 3.2m 몸무게 2.5t...건강 좋지 않아 특별대우

광주 우치동물원에 사는 동물원 중 단연 최고의 터줏대감은 누구일까.

하마사에서 사육중인 수컷 하마 '힙(Hip, 하마와 초식동물·사진)'이다.

지난 1986년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났으며, 1996년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와 광주에서만 25년 가량 지내왔다.

현재 나이는 35세. 평균 수명이 40-50년임을 감안하면 장수한 셈이다. 사람 나이로 치면 70세 가량.

길이 3.2m, 몸무게 2.5t, 어깨높이 1.5m의 이 하마는 동물원에서도 얼마 코끼리(3.5t)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몸무게를 자랑한다.



주로 건조인 티모시, 배합사료와 양상추·양배추·고구마 등 총 35kg을 섭취한다.

자연에서는 낮 동안(18시간 정도) 물속에서 생활, 밤에는 활동하는 동물이나 동물원에서 생활하므로 밤에는 주로 내실에서 휴식하고 있다.

특히 하마사 물이 더럽다고 관람객의 오해가 많은데, 이는 먼지떨이 같은 꼬리를 흔들며 배설물을 물속에 흩어버리는 습성 때문이다.

현재 국내 동물원에서는 우치동물원과 서울대공원, 전주동물원 등 단 3곳에서만 하마를 만나볼 수 있다.

나이 많고 장수 동물인 이 하마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몇 걸음 때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2022-2024년 동물원 시설개선사업' 계획에서 하마사가 제외된 이유는 하마의 나이가 너무 많아 현재 활동량과 섭취량이 줄어든 상태로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동물원은 주기적인 치아관리(물양치) 실시, 행동 풍부화의 일환으로 특수(제철과일) 등 제공으로 노령 동물 하마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부분 세상을 떠나면 다시 구하기 어려운 멸종위기종이어서 하마에게 쏟는 동물원 측의 정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각별해지고 있다.

/오승기기자

도, 오늘 도로 교통량 일제 조사

전남도는 13일 "14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국지도와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량 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전남에서는 여수 등 21개 시·군 국지도 27개소, 지방도 129개소 등 156개소에서 936명의 조사원이 직접 통과 차량의 대수를 시간대별, 차종별, 방향별로 조사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발간과 교통량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www.road.re.kr)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교통량 조사 결과는 도로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도로 교통량 조사가 주·야간으로 실시되는 만큼 안전사고 없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3대 가족정원 만들기

(사)숲속의 전남은 13일 오전 광양시 백운재 일원에서 '2021 가족사랑 효(孝)문화 실천을 위한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일반가족과 지역주민, 숲속의 전남 회원 등 참가자들이 가족정원을 꾸미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재정기자

전남도, 덴마크 터빈기업 공장 유치 쟁점

해상풍력 선도기업 '베스타스' 시장조사단과 실무협의

전남도가 해상풍력 선도기업인 덴마크의 풍력발전기 터빈 기업과 함께 도내 공장 설립을 통한 투자 실현을 협의했다.

전남도는 13일 "덴마크 풍력발전기 기업 베스타스와 도내 해상풍력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터빈공장 설립 등 산업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전남 도청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

을 비롯한 도 관계자와 베스타스 모튼 부회장, 칼슨 부사장, 스단 부사장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베스타스 시장조사단의 이번 방문은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 검토를 위한 시장조사 목적으로 이뤄졌다.

모튼 부회장은 전남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현황과 도내 공장 부지 및 투자 여건 등에 대해 질문하고 전남도와 베스타스 간 해상풍력 협력 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했다.

김신남 국장은 "전남에 터빈공장 설립 시 전복과 울산에 접근하기 쉽다는 지리적 장점이 있다"며 "전남이 터빈공장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국장은 "전남도는 해상풍력 단지와 최근접 수출입 항만인 목포신항과 배후부지를 해상풍력 클러스터 중심축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베스타스 등 국내외 터빈사가 전남에 공장을 설립해 일 자리를 창출하고 타워·블레이드 등 협력업체를 육성해 단계적으로 도내 생산 부품 사용을 확대할 기대한다"며 "터

빈공장 설립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모튼 부회장 등 베스타스 시장조사단은 실무협의를 마치고 목포신항을 찾아 터빈공장 부지 등 투자 여건을 살핀 후 "목포신항의 접근성 및 부지 여건 등이 터빈공장 부지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베스타스는 시장조사 결과와 국내 터빈 발주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국내 투자 시기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6월 재생에너지 전 분야에서 덴마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 덴마크 대사관, 베스타스, 씨에스윈드와 해상풍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15일 국정감사 준비 '이상無'

'장인상' 금지사 발인 후 곧장 복귀 전 실·국장 소집 예상 쟁점 보고회

전남도가 15일 열린 예정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서울에서 장인상을 치른 김영록 지사는 발인이 끝난 13일 오후 곧장 도청으로 복귀해 예상 쟁점·답변 보고회를 주재하는 등 업무 공백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도청 서재펠실에서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국정감사 예상 쟁점·답변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정감사 수감 준비계획과 각 실·국 별 예상 쟁점 52건을 보고 받았다.

실·국장들은 핵심 쟁점 중심으로 선정 사유와 답변 방향을 김 지사에게 설명했다.

당초 이날 보고회는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 장례 일정이 지연되면



서 오후 4시 30분으로 미뤄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장인상을 치른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는 틈틈이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국정감사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세부 사항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14일 오후와 15일 오전 등 두 차례 더 국장 준비상황 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전남도의 한 간부는 "김 지사가 장례를 치른 뒤 곧바로 복귀해 국정감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지시한 만큼 전 실·국장 역시 국감을 앞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국회 지방감사 1반 소속 의원 10명(더불어민주당 서영교(반장)·김민철·양기대·오형훈·이형석·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김용판·이영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한다. /김재정기자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